현불 논단

잠깐 멈추니 보이는 것들

석길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긴 사회적 거리두기 속
취약계층 피해 확산돼
모두를 끌어안는 노력
불교계의 당위적 책무

삶의 '잠깐멈춤' 속에서
당연시된 타성 의문생겨
발전 · 성장주의 경종 의미
삶에 대한 성찰 필요해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코로나19는 독특해서 사회의 빈부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쇠약한 자를 집중 공격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집중 공격하고, 의료적 측면에서는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망이 약한 곳만 골라서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물리적 거리라는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이다. 코로나19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을 활용해서, 사회가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같은 대응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성공의 다른 쪽에서는 인간 개개인과 사회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적잖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서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전히 제대로 대응 못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취약계층을 끌어안고, 모두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계 특히 우리 불교계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팬데믹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마음 한쪽의 화두로 남아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바쁘지 않은 혹은 바쁜 일상에 대응하는 방법론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의 방식에 전혀 새로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가족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 역시 만만찮은 변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필자는 스스로와 주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콕 찍어서 말하기 힘든 이러한 변화들을 '잠깐 멈춤' 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의 생각하는 방식에 고민을 던지게 하는 그 '잠깐 멈춤' 이다. 그런데 그 '잠깐 멈춤' 이 의외로 길어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의 타성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산업화 이후의 최근 백여 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 인간이 추구해온 발전과 성장 위주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잠깐 멈춤' 으로도 읽힌다.

올해 2564번째로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유독 길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범불교계가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에 치르기로 연기하면서다. 실제로는 한 달 동안 내내 부처님이 우리 옆에 머물면서, 우리 삶에 화두를 던지시게 된 셈이다.

언제나처럼 단 하루에 불과한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면, 올해도 여느 해처럼 몇몇 사찰을 찾아다니며 연등공양을 올리기 바빴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이라 생각을 돌려보니, 한층 여유를 부리게 되었다. 그 와중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문득 든 생각이다.

"왜 올해에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한 달이나 머무시는 것일까?" 올해는 유독 신경 써야할 중생들이 많아져서? 아니면, 우리가 타성처럼 받아들인 삶의 방식을 고치기에 하루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저마다 떠오르는 답변은 다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던져준 '잠깐 멈춤' 과 '한 달 동안 부처님 바로 옆에 계심' 에 즈음하여, 내가 손에 든 화두는 '내가 젖어있는 타성' '내 주변 사람들이 젖어있는 타성' 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社說

'불교 대중화 · 현대화' 실천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4월 20일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 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여 동안 조계종 스님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종단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 고령화와 출가자 및 스님 인원 급감, 종교지형 변화로 인한 신도 감소 등 종단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종단 미래를 위한 변화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분야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3.2%)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혹은 불교의 사회참여 강화)' 를 꼽았다. 미래 사찰의 역할 항목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 에 대해 8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도 맥을 함께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목표를 인식하고 공유해야 조계종 종책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앞서 2011~2015년 대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했다. 여기서 확인된 국민들의 인식과 현재 스님들의 인식을 종단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불교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 종책들을 생산하길 바란다.

종교계 취약계층 연대 환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등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우려가 피부에 와 닿다 못해 사지로 몰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급식노동자를 해고했고 대한항공은 자회사인 한국항공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실업자가 증가해 60만명을 넘어섰고 급여 지급액이 8982억원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고정 수입이 없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삶이 뒤흔들리고 있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이들의 절규는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사는 것 자체로 버거워 힘을 모을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 미약한 목소리들을 듣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바로 종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함께하며 희망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책무가 아닌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들을 위해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선 3대 종교 토론회를 열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실과 절규를 들었다.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며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의지나 계획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이 제안한 '코로나19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기도회' 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외국인 수녀와 손때 묻은 염주

어느 해는 봄이 시작되자마자 여름이 몰려와 봄옷 입을 겨를도 없이 여름옷을 준비해야할 때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인지 유독 봄이 길게 느껴진다. 6년 전인 2014년도 윤달이 있는 해였는데, 그때도 봄이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그 해의 화창한 봄날은 내게 특별한 추억이 있었다. 어느 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아일랜드인 미리엄 수녀님을 만났다. 이전에도 서로 일면식이 있던 사이라 자연스레 인사 했고, 수녀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공동체를 방문해 달라고 나를 초대했다.

며칠 후 방문한 수녀님의 작은 공동체는 2층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이내 수녀님 처소가 있는 2층으로 안내 되었다. 밖으로 나있는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 도착한 2층은 수녀님 처소와 환자 방사가 있었다. 쉼터를 찾은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2층 방까지 사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수녀님의 안내로 올라간 2층서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거실 벽면에 '오유지족(吾唯知足)' 이라고 쓴 액자와 그 아래 놓여진 분홍 연꽃등이었다.



그림 · 최주현

비록 외국인이지만 불교적이고 한국적인 물건들을 소중하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수녀님은 알이 굵은 염주와 백팔 염주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곳서 계시다 돌아가신 형제분이 불자셨어요. 그 분이 임종 후 남겨진 유품인데 이제 스님께 전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독특한 외국인의 발음이기에 그의 말이 더욱 또렷이 들린 것일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아찔했다. '아! 이곳에도 불자가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남달랐다.

받아든 염주에선 기도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염주 주인은 한 알씩 돌리며 부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보리수 백팔염주가 내 손에 닿는 순간, 그 분의 간절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리고 그 염주를 오랜 세월 간직하다 전해 주시는 그 수녀님의 배려심과 환자의 다른 종교마저도 존중해 준 종교와 인간애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작년 8월, 미리엄 수녀님이 갑자기 임종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말 믿기지 않았다. 다리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을 때만도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들린 임종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수녀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염주를 돌리며 수녀님께서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기도했다. 감염 환자들을 위해 머나먼 타국인 우리나라에서 헌신과 사랑을 펼쳐주신 수녀님, 극락왕생하소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전체 100권 중 1차분 10권 『화엄현담』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10
- 화엄현담華嚴玄談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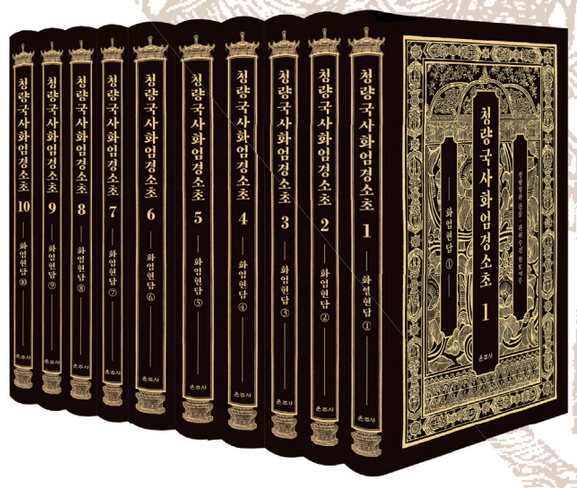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과 논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불사!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1권: 22,000원 2권: 20,000원 3권: 20,000원 4권: 22,000원
5권: 25,000원 6권: 25,000원 7권: 17,000원 8권: 17,000원
9권: 15,000원 10권: 17,000원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